

協同体制은 國家的 次元에서 推進되어야

企業, 大學研究支援金 減少趨勢

金 健 永

現代重電機(株) 專務

1. 概 要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刮目할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65年 1人當 GNP 105弗에서 '83년에는 1,884弗로 무려 18배의 높은 成長率을 보여왔다 이러한 外形의 成長과 並行해서 技術水準 또한 많은 發展을 이룩하였으나, 날로 새롭게 開發되는 先進國 尖端技術分野등에는 아직도 많은 隔差를 보이고 있는 實情이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資源貧國이 急變하는 國際市場 版圖에 對處, 持續的인 成長 維持를 위해서는 오로지 새로운 技術開發에 의한 競爭力 提高만이 唯一한 手段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지난 몇년동안의 우리나라 GNP對比 R&D投資比率를 보면 '82年 1.09%, '84年 1.4%에 불과하며, '85年과 '86年의 目標가 各各 1.7%, 2%로서 이는 '82年度의 美國 2.53%, 日本 2.20%, 西獨의 2.66%에 비해서 隔世之感을 갖게한다.

비단 成功的인 技術開發을 위해서는 投資金額만이 關鍵은 아닐 것이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制度的 裝置 및 與件造成, 그리고 그 推進方法 등에서도 成敗를 가름하는 많은 要素들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先進國에서는 研究開發에 대한 產學協同을 통하여 훌륭한 成果를 거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도 技術開發 促進 手段으로서 產學協同 活性化를 통한 研究開發 活動의 활발한 展開가 절실히 要請된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나라 產學協同의 現實과 앞으로의 展望에 대하여 記述해 보고자 한다.

2. 產學協同의 現實

1) 大學에 대한 主要 各 財團의 研究費 支援 現況

○ 產學協同財團

(金額: 百萬元)

區分 \ 年度	'80年	'81年	'82年	'83年	'84年	'85年計劃
研究課題件數(件)	215	240	176	82	73	未定
研究費 支給額	598	733.5	580	305.5	254	250

○ 峨山財團(現代그룹)

(金額: 百萬元)

區分 \ 年度	'80年	'81年	'82年	'83年	'84年	'85年計劃
研究課題件數(件)	145	140	110	100	98	未定
研究費 支給額	305	295	253	272	229	250

○ 大宇財團(大宇그룹)

(金額: 百萬元)

區分 \ 年度	'80年	'81年	'82年	'83年
研究課題件數(件)	-	80	88	41
研究費 支給額	-	337	264	273

上記 年度別 推移에서 알 수 있듯이 大學에 대한 企業財團의 연구비 지원 금액이 현저히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코 所望스러운 趨勢라 할수 없다.

2) 產學協同實態

지난 '84年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에서 國內 230個 業체를 對象으로 調査한 '83年度 協同研究實態資料에 의하면 對象業体中 大學과의 協同研究는 總 216件中 56件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大學과의 協同研究가 大企業은 總173件中 54件(31.2%)이나, 中小企業은 總43件中 2件(4.7%)으로서 이는 產學協同研究가 大企業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中小企業에까지도 擴散 展開될 수 있는 方案 摸索이 要請된다.

○'83年度 協同研究實態

區 分	大 學	政府出捐 研究機關	競爭企業	系列企業	海外企業 研究所 大學等	合 計
合 計	56件 (25.9%)	107件 (49.5%)	5件 (2.4%)	6件 (2.8%)	42件 (19.4%)	216件 (100%)
大 企 業	54件 (31.2%)	76件 (43.9%)	2件 (1.2%)	5件 (2.9%)	36件 (20.8%)	173件 (100%)
中小企業	2件 (4.7%)	31件 (72.1%)	3件 (7%)	1件 (2.3%)	6件 (13.9%)	43件 (100%)

3) 產學協同의 必要性

가. 先進國의 莫強한 資本力에 비해 資源이 貧弱하다.

나. 研究開發을 效果의으로 遂行할 수 있는 高級 頭腦의 絶對數가 부족하다.

다. 協同을 통한 새로운 技術情報入手 및 交換이 容易하다.

라. 大學과의 協同研究는 研究費가 저렴하고 基礎理論의 뒷받침이 確實하며 相互 協助가 容易하다.

마. 研究試驗用 施設을 共同 活用할 수 있어 重複投資를 防止할 수 있다.

4) 產學協同의 問題點

가. 企業 經營層의 產學協同에 대한 認識및 理解가 不足하다.

나. 稅制 支援이 미흡하다.

다. 學界의 實務經驗不足에 따르는 企業化가 어렵다.

라. 共同開發 對象課題가 不足하다.

마. 機密 保障이 어렵다.

3. 앞으로의 推進 方向

1) 共同研究開發에 대한 稅制支援制度가 擴大되어야 한다.

가. 研究材料費의 稅額 控除

나. 研究試驗用 施設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特別償却)

2) 技術開發支援金を 擴大하며, 技術開發準備金 積立을 義務化한다.

3) 國家的 次元에서 國內 駐在가 근란한 優秀한 海外 韓國科學者의 活用方案을 摸索하여 企業과의 連結을 支援한다.

4) 技術開發 關聯 民願行政節次를 간소화한다.

5) 學界와 企業研究所間의 定期的인 研究開發發表 및 交流가 必要하다.

6) 基礎科學등 科學技術分野에의 投資에 대한 「인센티브」制度를 導入한다.

7) 中小企業의 同種分野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學界및 研究所와 共同으로 協同研究를 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한다.

4. 結 論

人類 歷史의 發展과 더불어 技術의 發展은 社會를 運轉하게 하였으며, 人間의 欲求 充足에 絶對的 寄與를 해왔던 만큼, 새로운 技術開發에 대한 人間의 欲望이 存在하는 한 技術의 發展은 無限히 持續될 것이며, 아울러 技術의 優位를 점하고자하는 熾烈한 競爭隊列에서 앞서가는 것만이 適者로서의 生存이 維持될 것이다. 賦存資源이 貧弱한 우리로서 技術開發의 重要性이 비단 오늘에야 강조되어지는 事實은 아니지만, 지난 數年間 思慮깊지 못한 投資의 虛實을 거울삼아 시급한 再武裝이 요청된다 할 수 있다. 특히 技術開發投資는 危險負擔이 많은 冒險事業이라 할 수 있으므로 學界·企業間의 協同體制를 바탕으로 國家的 次元에서 推進되어져야 資源의 浪費 防止 및 效率性 極大化를 기할 수 있으며 이 길만이 21世紀 科學立國의 문턱에 한 걸음 앞서는 捷徑이라 생각한다. *